

100세 시대 대응한 제주도민의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에 관한 욕구조사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김혜숙**, 이은정***

- I. 서론
- II. 가족의 변화상과 제주가족의 특성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IV. 주요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제주도민의 가족생활 실태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걸맞는 가족 및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 설문지 면접조사가 사용되었고, 427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징, 전반적 가족 실태, 결혼·이혼·재혼에 관한 실태, 노인관련 실태 및 노인정책 욕구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가족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설계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주저자.

***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부 강사, 교신저자.

주제어: 100세 시대, 제주도민, 가족생활실태, 가족정책

I. 서론

현대사회는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회구성원에게 100세 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삶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¹⁾. 즉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급속한 인구학적 변동, 건강한 기대여명(healthy life expectancy)²⁾의 증가, 가족의 기능 및 구조의 다양성, 가족가치관 및 인식의 변화, 경제활동에서 2인 소득자 모형의 증가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³⁾. 그러나 여전히 가족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계층이 존재하며, 이는 전반적으로 가족정책 수립 및 가족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초래했다. 또한 급속한 가족 변화의 과정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의 세대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는 가족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가족관련 정책 설계시 현 시점에서의 가족의 변화와 미래 변화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예견하는 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0년 10.9%로 10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하면서 67개 시군구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⁴⁾. 이에 사회 각 분야에서 100세 시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욕구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9%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고령자의 성비(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의 수)는 64.9로

1) 기획재정부, 「100세 시대 종합컨퍼런스 자료집」, 2011.

2)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 연수를 뜻하며, ‘기대수명’은 출생 시 기대여명을 의미함.

3) 최인희·김영란·염지혜, 「100세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2012-3), 2012.

4)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2013.

2040년에 82.1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비율은 23.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8.7%로 나타났다⁵⁾. 이러한 조사에서 보듯이 노년기가 장기화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20세 이상 성인남녀의 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100세 노인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즉 기존의 정책연구의 초점은 주로 노인복지, 또는 고령층의 퇴직으로 인한 노후생활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와 노후생활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 100세시대의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기 대상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예컨대 100세 시대 제주사회의 대응전략을 제시한 연구⁶⁾에서는 자립적인 당당한 삶, 일하는 활기찬 삶, 예방적 건강한 삶, 즐기는 문화적 삶 등을 누리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장수노인관련 연구⁷⁾에서 복지대책방안으로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 및 인식이 상당 수준 변화한 현 시점에서 100세 시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정책에 대한 관심은 보편화되고 있고,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성인남녀의 가족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설검증이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제주도민을 상정하여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의 현 실태 및 변화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100세 시대 대응한 제주도민의 생활 실태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걸맞는 가족 및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

5) 호남지방통계청,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자의 삶의 모습」, 2013.

6)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100세시대 도래와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2012.

7) 고승한·김진영, 「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된 가족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책설계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가족의 변화상과 제주 가족의 특성

최근 한국가족의 변화와 제주가족의 특성을 기존의 선행연구⁸⁾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변화하는 현대 가족

‘100세 시대’란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화를 통한 100세 시대 즉, 과거에 비하면 ‘두 배 인생’의 달성이 가능하며, ‘필요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의 특성에 관한 논의는 100세 시대 사회적·정책적 준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⁹⁾

최근 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한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변동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연령의 지연으로 결혼지체 및 회피현상 초래하였다.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과 평균 초혼 연령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정확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¹⁰⁾ 평균 결혼연령을 초과하는 30대 이상 49세 이하 남녀집단의 미혼비율은 지난 10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¹¹⁾

8) 고승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대책」, 제주발전연구원, 2004; 고승한·김진영, 앞의 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김진영, 『제주사회와 복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김혜숙, 「제주도 장수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23, 제주학회, 2003, 제주발전연구원, 「100세 시대 도래와 가족·건강분야」, 제주미래포럼, 2012; 제주발전연구원, 「고령사회대비 노인 사회참여와 장수문화 계승·발전 모색」, 제3회 장수문화포럼 세미나, 2013;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장수노인과 독거노인의 복지수준 질적 개선방안 모색」, 제1회 제주장수문화포럼세미나, 2012;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100세시대 도래와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2012.

9) 장혜경·김은지,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제69차 여성정책포럼, 2011.

10) 통계청, 『사회조사』, 2009.

11) 통계청, 『사회조사』, 2011.

100세 시대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와 더불어 가족생활자다양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확대가족형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2세대 가구의 감소(70년대 거의 70%에서 현재 절반가량 감소) 및 1세대 가구 비율증가(2005년 16.2%에서 2010년 17.5%; 1.3%p 증가),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를 통해 향후에도 1세대 부부가족이나 1인 가구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한부모 가족이며, 조손 가족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출산 연기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로 인한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은퇴기간의 증가로 말미암아 사회참여를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아질 것이다.¹²⁾ 즉청년기(20~29세)의 첫 직장 진입시기의 지연으로 전체 노동력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26.4%), 2000년(20.2%), 2010년(15.3%)로 11.1% 감소한 반면, 은퇴시기의 지연으로 전체 노동력 구조에서 중년기(50~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17.3%), 2000년(18.1%), 2010년(24.7%)로 7.4% 증가하였다.¹³⁾ 그러나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조기퇴직이 예상되며,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나 평생직장이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선택이 아닌 가족의 생존 또는 안정적인 생계 기반 유지 위한 필수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60~80대 고령자의 사망률의 감소와 생애주기상 노년기의 비중이 길어지고 있어, 노인부부 가구 증가 및 노인 1인 가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가족생활주기가 길어질 전망이며, 최근 나타나는 만혼과 출산연기 현상을 통해 1세대의 자녀독립기 이전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가족주기발달단계 중 성인자녀와의 동일세대 동거기간 길어지고, 자녀 독립 이후 노년부부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결혼과 출산시기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고 있으며, 결혼적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0세 시대 가족」, 제69차 여성정책포럼, 2011.

13) 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 2013.

령이나 출산적령기 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과거와 같은 연령규범은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으로 교육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독립의 유보로 만혼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성인자녀와 부모세대가 과거에 비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통적 가족문화가 약화되면서 세대 구성에 따른 부양가치관의 약화로 다양한 노인부양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즉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적 구속력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¹⁴⁾, 노인가구(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노인 1인가구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05년 대비' 10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증가하여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노부모를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들(장남)에 의한 부양은 감소하고 '모든 자녀'가 함께 부양하는 비율(16.8%)은 높아졌다. 그러나 2012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하여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36.6%)」,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34.6%)」, 「스스로 해결(22.3%)」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은 증가하고 있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¹⁵⁾

한편 사회적 부양 부담이 증가되면서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 care)¹⁶⁾'가 등장했다. 아울러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부양에서 '직계가족규범'은 약화되었으나, 전화통화와 대면접촉을 통한 성인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와의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14)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15)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 2013.

16) 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12. 케어가 필요한 노인을 자녀로 대표되는 젊은세대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것을 의미.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형태 또는 소득수준에 의해 지원대상이 될 경우 생활가사지원, 심리건강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기존의 케어인력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유효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효과를 내포하고 있음.

관계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¹⁷⁾ 그러나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100세 시대에는 다양한 혼인형태가 존재할 것이고, 배우자 관계에서도 재혼, 삼혼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이 복잡화와 다양화가 예상된다.¹⁹⁾ 이는 전체 재혼 중 ‘남자 초혼과 여자 재혼’ 부부의 구성비가 1982년 15.1%에서 2012년 26.9%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전체 재혼 중 ‘사별 후 재혼’ 구성비는 감소하고 ‘이혼 후 재혼’ 구성비는 증가한²⁰⁾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 및 재혼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2012년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11만 4,316건) 중 남자 고령자는 4,836건으로 전체의 4.2%, 여자 고령자는 1,955건으로 1.7%를 차지하며, 2012년 고령자의 재혼건수는 남자 2,449건, 여자 912건으로 2005년에 비해 각각 1.6배, 2.2배 증가하였다.²¹⁾ 혼인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결혼, 이혼, 재혼의 당위성 약화가 노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여전히 ‘80세 시대’에 맞추어져 있다. 즉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출생, 교육, 취업, 결혼, 가족생활, 정년퇴직, 은퇴생활 및 사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 대응에 앞서 현대사회에 잔재해 있는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²²⁾

2. 제주도 가족의 특성

제주도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6.0%(32,882명) 증가하였으며, 여자(5.2%)에 비해 남자(6.7%)의 인구증가율이 1.5%p 높게 나타났다. 인구

17) 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 2013.

18)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 2013.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0세 시대 가족』, 제69차 여성정책포럼, 2011.

20) 통계청, 『우리나라의 이혼·재혼 현황』, 2013.

21)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13.

22) 전홍택 외 6인,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11-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구성비를 보면 14세 이하는 4.8% 낮아진 반면, 15세~64세 인구는 0.6%, 65세 이상 인구는 4.3%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성비는 10년 전에 비해 15.0 낮아진 103.4명으로 나타났으며, 조출생률²³⁾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지난 10년간 연령별 인구의 두드러진 점은 14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2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²⁴⁾

2013년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21.4%), 전북·경북(17.5%), 강원(16.4%), 충북(14.5%), 제주(13.9%)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낮은 지역은 울산(7.8%), 대전·경기·인천(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²⁵⁾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는 1980년 6.1명, 2010년 15.2명에서 2040년 57.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²⁶⁾

2010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5세로 가장 높고, 프랑스 81.7세, 한국·독일·영국이 80세 수준이며, 향후 30년간 기대수명은 브라질 7.0세, 인도 5.8세에 이어 한국은 5.2세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이다.²⁷⁾ 배우자 사별 후 혼자 보낼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남성보다 여성노인 문제 심각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수 증가와 더불어 여성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거주유형에서 전국은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63.5%)이 가장 높고, 제주는 전국시도별 통계결과 2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²⁸⁾ 단독주택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국 60~64세 이상 인구의 가구별 점유형태는 자기집 76%, 전세 12%, 보증부 월세 8%, 무상 2% 순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제주도 60~64세 인구의 점유형태별 가구는 자기집 76%, 사글세 10%, 무상 6% 순으로 조사되었다.

23) 조출생(사망)률: 출산(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표시함.

24) 호남지방통계청, 「2013년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2013.

25) 통계청, 앞의 책, 2013.

26)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 2012.

27) 통계청, 앞의 책, 2013.

28) 통계청, 「고령화 복지정책의 사각지역 연령층(60~64세)에 대한 연구 분석」, 2010.

초혼연령은 2011년 남성 32.0세, 여성 29.2세로 전국보다 만혼현상이 조금 높았고, 재혼연령은 2011년 남성 45.6세, 여성 41.3세로 전국평균보다 낮았다.²⁹⁾ 제주의 이혼율은 산업화시기 이전부터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여성신화 ‘백주할망’의 신화에서 남편이 남의 집 소를 잡아먹었다고 집에서 아내는 신화를 통해서도 제주의 여성이 ‘살림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백주할망은 제주도 이혼의 시조라고 판단된다.

2010년 대비 이혼율은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은 인구 1천명당 2.5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³⁰⁾ 15세 이상 제주 인구 중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7%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인구의 48.5%는「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67.3%는「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30.9%는「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평균 초혼연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여성 초혼 연령은 29.82세, 제주도는 29.18세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평균 출산연령이 제주(31.39세)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첫째아 출산시 부모의 결혼생활기간이 짧게 나타났고, 특히 셋째아 이상의 비중이 1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³¹⁾ 결혼에 대해서 62.7%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미혼 남자는 60.4%가 결혼에 찬성하는 반면, 미혼 여자는 결혼을 원하는 비중이 43.3%에 불과하여 남녀간 견해에 차이가 있었다.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48.7%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여자의 절반이상(52.0%)이 경우에 따라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은 남자(23.6%)가 여자(1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³²⁾ 13세 이상 인구의 56.2%는 전반적인 가

29)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1.

30) 통계청, 『장래인구추이』, 2010.

31)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고서』, 2012. 62쪽.

족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만족하는 비율은 71.8%인데 반해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59.2%로 나타나 부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2010년은 남편 69.9%, 부인 59.6%가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부모’와의 만족 비율은 64.0%로 남자(63.9%)와 여자(64.2%)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자가 57.4% 만족하는 반면, 여자는 44.1%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통혼권의 확산으로 마을내혼이 상당히 사라지면서 제주지역의 독특한 친족문화에 변화가 나타난다. 즉 성펜당, 외펜당, 처당, 시당 등 당문화가 여전히 지속되는 부분도 있으나 가족, 친족관계의 마을공동체 의식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마을 내혼에서 도외혼으로 확산됨을 의미하며, 육지와는 물론 외국인과의 혼인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는 부수적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하였는데, 부부단위가 아닌 각 개인사회 참여와 부부 및 가족의 결속력이 감소되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제주사람들은 과거부터 움직일 수 있는 한 노동을 해왔으며, 강한 노동력을 겸비한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의 남성들의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을 해왔고, 제주남성들에게 있어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자신들의 어머니와 같은 여성상이 내재되었다고 추측된다.

특히 제주지역 사람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³²⁾ 사회활동 중 가장 주된 분야는 친목 및 사회단체(계, 동창회 등) 참여로 나타났다. 즉 부부나 가족단위 보다는 부부 각자의 동창회나 친목모임으로 사회 연결망(예를 들면 오름 오르기, 올레길 걷기 안, 밖거리 생활 문화)이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저녁이나 주말에 부부와 가족이 함께 하지 않는 현상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는 물론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제주가족도 현대사회로 오면서 농업사회에서 벗어나면

32) 통계청, 앞 보고서, 64쪽.

33)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1. 73쪽.

서 직장에서 은퇴한 남성들의 가족생활 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 혼인이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순이며, 전년 대비 울산(5.3%)과 제주(3.7%)를 제외한 지역에서 감소추세이다.³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남(1.2%), 제주(11%), 전북(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도 제주가 5.2%로 전국 평균(4.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법’ 제정 및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역이 되었고, 이 시기에 맞춰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이 이주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자율성을 이양 받게 되었다.³⁵⁾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거주 외국인 숫자가 증가³⁶⁾하게 되었으므로,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역성에 기반을 둔 다문화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통합과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³⁷⁾

종합하면 제주도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가족 구성과 달리 좀 더 실용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제주사회의 경우, 일찍부터 육지부에 비해 핵가족 비율이 높는데 결혼하여 독립하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키운 40~60세 정도의 중년부부들은 자녀를 대학교육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육지로 보내고, 집에는 부부끼리만 살며, 노부모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떨어져 살고 있기는 하나 전화나 가끔의 방문을 통해 일상생활을 공유하지는 않으나 정서적으로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고, 독립 후에도 부모의 경제생활 능력이 있을 시에는 협조를 하며, 노부모에게도 일상생활유지에 필요

34) 통계청, 『2012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2013.

35) 황석규,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 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36) 김영순·이미정·최승은, 「제주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정책 실태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37) 김영순, 『이민자 통합을 위한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 연구』, 「문화정책논총」 23, 2010; 김민호·오성배,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탐라문화』 3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한 사항과 경제적 지원을 한다.³⁸⁾

특히 한국전통가족과 다른 제주가족 특징으로 장남의 분가, 균분상속 전통, 부계 혈연 집단의 결속력 약화, 조상제사 분할 등을 들었으며, 특히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간 접촉이 자유로우며,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의식이 미약하며, 장례혼례에 사돈댁 외가댁이 적극 참여하는 일들은 육지의 전통가족과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³⁹⁾ 또한 제주사회의 가족은 구조, 형태, 기능 및 가족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데, 친족을 ‘켄당’이라고 부르고, 부계 친족을 ‘방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관계는 결혼을 통해 성립되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다고 한다.⁴⁰⁾

이상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제주도민들의 생활실태는 어떠하며, 100세 시대에 대응한 가족정책육구를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필요하며 맞춤형 개발 및 정책관련 연구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3.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 정책

100세시대 가족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내용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사업, 공공민간부문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업, 좋은 부모 및 가족가치 확산 관련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1 - 2015)에서는 가족 가치의 확산(영역1), 자녀 돌봄 지원(영역2),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영역4)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 - 2012)에서는 여성인력활용 영역에서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강화를 위한 사

38) 장승심,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탐라문화』 4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2.

39) 최재석, 「제주도의 장남가족」, 『아세아연구』 56, 1976; 김혜숙, 『제주도가족과 켄당』,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40) 이창기, 『제주도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1999.

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가족의 가치 증진, 일과 가족의 양립 향상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가족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 돌봄자 및 노인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 및 제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⁴¹⁾, ‘노인돌봄종합서비스’⁴²⁾, ‘노인돌봄기본서비스’⁴³⁾, ‘노노(老老)케어’ 등이 있다.⁴⁴⁾ 가족돌봄자 지원정책은 가족 돌봄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돌봄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지원대상을 엄격한 기준(예: 소득수준, 노인의 기능상태 등)에 의해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 돌봄자와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 - 2014)⁴⁵⁾에서, 여성가족부문(1영역)에는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가족양립 지원정책 강화, 여성의 출산을 증대 및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 가구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있으며, 여성인력개발(3영역)은 여성의 취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건강복지부문(6영역)에서는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부문(8영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조성을 계획으로 시행 및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9월에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2011 - 2015)⁴⁶⁾에서

-
- 41) 사회보험 중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1~3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는 제도임
- 42)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43)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44) 장혜경·김영란·최인희,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과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45)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 - 2014)』, 2010.

는 고령화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 은퇴대비 대응,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전략을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100세 시대 대응한 정책을 영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제주지역 주민의 가족생활 실태 및 의식의 변화상을 고려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100세 시대에 대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도민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관련 정책 마련 및 노인복지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가족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자 통계적 자료를 통해 개괄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 및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문헌조사연구를 하였다. 문헌조사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족의 변화상 및 가족정책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주요 조사의 지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표 1>). 설문지의 타당성 검증에 위해 노인관련 전문가 3인과 가족관련 전공자 3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구성된 설문지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 하도록 하여 설문지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총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단순 무작위표본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 즉

46)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2011-2015)」, 2011.

지인들을 통해 설문지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무작위(random)로 추출하여 설문지 배부하도록 요청하여 회수하였다. 설문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0일 정도 소요되었다. 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설문과 회수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27개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미혼남녀도 포함하였다. 이는 100세 시대 대응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12.0을 이용하였고, 빈도,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 설문 구성

요인	항목	문항수	척도	출처
인구사회학적 요인	- 성별, 연령, 학력, 종교 - 결혼상태, 가족형태, 주거형태 - 경제수준, 월소득, 자녀수, 자녀계획	11	명목 척도	제주발전연구원 ⁴⁷⁾ 장혜경의 5인 ⁴⁸⁾
제주도민의 생활실태 요인	- 전반적 가족 실태 - 결혼, 이혼, 재혼 관련 실태 - 노인관련실태	25		
노인정책 요인	- 노인일자리 - 노인복지확대 - 돌봄서비스 - 인권과 안전 - 사회문화와 참여	20	Likert 4점	
계		56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민의 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가 54.3%(232명), 남학생이 45.7%(195명)이었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20~29세가

47)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정책연구』, 기본연구(2009-1), 2009.

48)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최진희,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 정책 전망(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28.1%(120명)로 가장 많고, 40~49세 35.8%(153명), 30~39세 21.1%(90명), 50~59세 10.8%(46명), 60세 이상 4.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48.2%(206명), 고졸 40.5%(173명), 대학원이상 8.7%(37명), 초졸이하 1.2%(5명), 무학 0.9%(4명), 중졸 0.5%(2명)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63.5%(271명)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31.4%(134명), 사별 2.6%(11명), 이혼 1.4%(6명), 재혼 1.2%(5명) 순이며, 가족형태는 부부+자녀(2세대) 69.5%(289명), 조부모+부부+자녀(3세대) 11.1%(46명), 부부만 7.0%(29명), 혼자 5.3%(22명), 부 또는 모+자녀(한부모가정) 4.3%(18명), 기타 2.9%(12명) 순이었다. 주거형태를 보면 70.3%(300명)가 자가이며, 전세 13.6%(58명), 기타 8.2%(35명), 월세(사글세) 6.6%(28명), 보증부 월세 1.4%(6명)로 조사되었다. 종교를 보면 없더라는 응답이 42.4%(181명)로 가장 많고, 불교 26.2%(112명), 천주교 17.3%(74명), 기독교 11.0%(47명), 기타 3.0%(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의 응답을 살펴보면 중층이라는 응답이 53.9%(223명), 중하층 26.6%(110명), 중상층 10.4%(43명), 하층 8.2%(34명), 상층 1.0%(4명)이었으며,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 7.4%(30명), 300~400만원 26.2%(106명), 200~300만원 18.6%(75명), 400~500만원 18.6%(75명), 100~200만원 미만 12.1%(49명), 600만원 이상 9.9%(40명), 500~600만원 7.2%(29명)였다. 자녀수에 대한 응답을 보면 2명 38.2%(163명)이 가장 많고, 자녀 없음 25.5%(109명), 3명 21.1%(90명), 1명 10.3%(44명), 4명이상 4.9%(21명)이며, 미혼의 경우 자녀계획에 응답을 보면, 2명을 계획하는 응답자가 47.0%(86명)로 가장 많고 모르겠음 15.8%(29명), 4명이상 6.0%(11명), 1명 5.5%(10명)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등 5개 변인별로 결혼에 대한 태도와 정책요구를 분석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령 변인은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으로, 학력 변인은 고졸이하(무학 포함), 대졸 이상으로, 그리고 경제적 수준 변인은 하, 중하, 중, 중상 이상으로 재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가족형태변인은 기타를 결측치로 처리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 일반적인 현황(n=427)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195	45.7	학력	초졸이하	5	1.2	
	여자	232	54.3		중졸	2	.5	
연령	20~29세	120	28.1		고졸	173	40.5	
	30~39세	90	21.1		대졸	206	48.2	
	40~49세	153	35.8		대학원이상	37	8.7	
	50~59세	46	10.8		무학	4	.9	
	60세 이상	18	4.2		종교	기독교	47	11.0
결혼 상태	미혼	134	31.4			불교	112	26.2
	기혼	271	63.5			천주교	74	17.3
	이혼	6	1.4			없음	181	42.4
	사별	11	2.6	기타		13	3.0	
	재혼	5	1.2	경제 수준	상	4	1.0	
가족 형태	부부만	29	7.0		중상	43	10.4	
	부부+자녀(2세대)	289	69.5		중	223	53.9	
	조부모+부부+자녀(3세대)	46	11.1		중하	110	26.6	
	혼자	22	5.3		하	34	8.2	
	부/모+자녀(한부모가정)	18	4.3	월 소득	100만원 미만	30	7.4	
	기타	12	2.9		100~200만원 미만	49	12.1	
주거 형태	자가	300	70.3		200~300만원 미만	75	18.6	
	전세	58	13.6		300~400만원 미만	106	26.2	
	보증부월세	6	1.4		400~500만원 미만	75	18.6	
	월세(사글세)	28	6.6		500~600만원 미만	29	7.2	
	기타	35	8.2		600만원 이상	40	9.9	
자녀수	자녀 없음	109	25.5	자녀 계획	모르겠음	29	15.8	
	1명	44	10.3		1명	10	5.5	
	2명	163	38.2		2명	86	47.0	
	3명	90	21.1		3명	47	25.7	
	4명이상	21	4.9		4명이상	11	6.0	

IV. 주요연구결과

1. 제주도민의 생활실태

1) 전반적인 가족생활 실태

(1) 가족이미지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40.9%(171명)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피로 맺어진 사람 34.9%(146명), 같이 사는 사람(주거) 18.2%(76명),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된 사람 3.8%(16명), 기타 2.2%(9명)순이었다.

<표 3> 가족이미지

구분	빈도	퍼센트
피로 맺어진 사람	146	34.9
서로 사랑하는 사람	171	40.9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된 사람	16	3.8
같이 사는 사람(주거)	76	18.2
기타	9	2.2
합계	418	100.0

(2) 주말 가족 간의 시간사용

주로 개인취미생활 28.6%(11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가족 보살피기 16.5%(68명), 가사 16%(66명), 교제 및 여가활동 15.7%(65명)순이었다.

<표 4> 주말 시간사용

구분	빈도	퍼센트
개인취미생활	118	28.6
일	29	7.0
학습	6	1.5
가사	66	16.0
가족 보살피기	68	16.5
봉사활동	4	1.0
교제 및 여가활동	65	15.7
가족행사 참여	29	7.0
운동	11	2.7
기타	17	4.1
합계	413	100.0

(3) 평일 가사시간 및 가사분담

평일에 어느 만큼 가사시간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30분 이내가 29.3%(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분~60분 22.9%(97명), 1시간~1시간 30분 14.9%(63명), 1시간 30분~2시간 11.3%(48명), 2시간~3시간 10.9%(46명), 3시간~4시간 6.9%(29명), 5시간 이상 3.1%(13명), 4시간~5시간0.7%(3명) 순이었다.

<표 5> 평일 가사시간

구분	빈도	퍼센트
30분 이내	124	29.3
30분 ~ 60분	97	22.9
1시간 ~ 1시간 30분	63	14.9
1시간 30분 ~ 2시간	48	11.3
2시간 ~ 3시간	46	10.9
3시간 ~ 4시간	29	6.9
4시간 ~ 5시간	3	0.7
5시간 이상	13	3.1
합계	423	100.0

가사분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47.5%, 201명)와 부인이 주로, 남편은 보조해야 한다(43.7%, 185명)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가사분담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해야한다는 의식이 많이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가사분담

구분	빈도	퍼센트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	20	4.7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9	2.1
부인이 주로, 남편은 보조해야 한다.	185	43.7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	201	47.5
남편이 주도한다.	2	.5
남편이 주로하고 부인도 보조한다.	6	1.4
합계	423	100.0

(4) 가정에서의 성차별

가정생활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있다는 포함하여 55.4%(133명)가 가정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의 결과로 보아 여전히 가족내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가정 성차별

구분	빈도	퍼센트
많이 있다.	53	12.6
약간 있다.	180	42.8
그저 그렇다.	48	11.4
없다.	75	17.8
약간 없다	5	1.2
거의 없다.	60	14.3
합계	421	100.0

한편, 결혼한 여성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보육서비스 32%(134명)와 가사분담 25.5%(107명)을 원하고 있었으며 육아 휴직제도 23.2%(97명), 직장 내 양성평등 확립 6.9%(29명), 직업관련 재교육 3.3%(14명), 노인수발 보조 2.4%(10명) 순이었다. 이를 볼 때 가정과 직장에서의 알립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표 8> 직장생활 유지조건

구분	빈도	퍼센트
가사분담	107	25.5
보육서비스	134	32.0
건강검진 및 관리	28	6.7
육아 휴직제도	97	23.2
직업관련 재교육	14	3.3
직장 내 양성평등 확립	29	6.9
노인수발 보조	10	2.4
합계	419	100.0

(5) 가정생활의 어려움

현재 가정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27.3%(113명)를 제외하고 자녀 양육 및 교육(26.1%, 108명)과 경제적 문제(25.6%, 106명)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가정내의 문제 중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가족들과 상의(55.5%, 233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비공식적인 지지비율이 친구의 조언(19.8%)를 포함해 75.3%로 아직 까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지지가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가정생활의 어려움 및 문제해결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가정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106	25.6
	자녀 양육 및 교육	108	26.1
	부부관계	27	6.5
	부모자녀관계	21	5.1
	친인척문제	11	2.7
	건강문제	21	5.1
	별다른 문제가 없다	113	27.3
	기타	7	1.7
합계		414	100.0
문제 해결 방법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상의	12	2.9
	자신의 경험을 참고	57	13.6
	전문서적 등 참고	14	3.3
	신문, 잡지 등을 참고	6	1.4
	가족들과 상의	233	55.5
	친구의 조언	83	19.8
	종교지도자와 상의	10	2.4
	기타	5	1.2
합계		420	100.0

(6)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대상자들은 국제결혼에 대해 그저 그렇다를 포함하여 77%(321명)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일반가정에서는 그리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관심 있다.	14	3.4
관심 있다.	82	19.7
그저 그렇다	186	44.6
관심 없다.	96	23.0
매우 관심 없다.	39	9.4
합계	417	100.0

국제결혼가정(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양국의 문화체험 35.4%(146명), 한국어교육 30.6%(126명), 직업안내 및 취업훈련 16.5%(68명), 자녀양육 14.6%(60명), 요리교실 0.5%(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다문화 지원

구분	빈도	퍼센트
한국어교육	126	30.6
양국문화체험	146	35.4
요리교실	2	0.5
자녀양육	60	14.6
직업안내 및 취업훈련	68	16.5
기타	10	2.4
합계	412	100.0

(7)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시급한 것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40.7%(168명)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부상담 및 교육 강화 22.8%(94명),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의무화 12.1%(50명), 가족상담 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 7.7%(32명), 일자리 확대 및 취업 훈련 확대 4.6%(19명), 세대관계 강화 4.1%(17명), 아동,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3.1%(13명), 이혼 전 상담 의무화 2.7%(11명), 지속적인 위기개입 서비스 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12> 가족해체 예방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교육	168	40.7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의무화	50	12.1
가족상담 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	32	7.7
부부상담 및 교육 강화	94	22.8
이혼 전 상담 의무화	11	2.7
지속적인 위기개입 서비스	6	1.5
아동,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13	3.1
세대관계 강화	17	4.1
일자리 확대 및 취업 훈련 확대	19	4.6
기타	3	0.7
합계	413	100.0

(8) 현재 생활여건 및 행복감

현재 생활여건에 대해 50.4%(210명)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60.3%(255명)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13> 생활여건 및 행복감

구분		빈도	퍼센트
생활여건	많이 좋아졌다.	54	12.9
	약간 좋아졌다.	156	37.4
	변화가 없다.	163	39.1
	나빠졌다.	17	4.1
	약간 나빠졌다.	21	5.0
	많이 나빠졌다.	6	1.4
	합계	417	100.0
행복감	매우 행복하다	108	25.5
	조금 행복하다	147	34.8
	보통이다	148	35.0
	별로 행복하지 않다	15	3.5
	매우 행복하지 않다	5	1.2
	합 계	423	100.0

2) 결혼, 이혼, 재혼에 관련 실태

(1) 결혼에 대한 견해

조사대상자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를 포함해서 69.8%(298명)가 결혼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만약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74%(316명)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미온적 태도도 27.6%에 이르고 있어 결혼을 상황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도 적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표 14>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계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한다*
남자	195 (100.0)	63 (32.3)	91 (46.7)	34 (17.4)	7(3.6)
여자	232 (100.0)	43 (18.5)	101 (43.5)	84 (36.2)	4 (1.7)
전체	427 (100.0)	106 (24.8)	192 (45.0)	118 (27.6)	11 (2.5)

주 : '잘 모르겠다' 항목 있음

*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한다'를 합한 수치임

<표 15> 결혼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일, 학업에 몰두하고 싶어서	23	5.4
결혼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15	3.5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49	11.5
자녀출산의 부담 때문에	4	0.9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316	74.0
현재 결혼제도가 싫어서	16	3.7
기타	4	0.9
합계	427	100.0

(2)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생각은 59.2%(253명)이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39.3%(15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혼을 고려해본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남자들은 거의 없다(16.9%)가 여자들은 가끔 있다(25.5%)가 높게 나왔고, 카이검증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이혼을 한 두 번 이상은 고려해본 것을 볼 수 있다.

<표 16> 이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계	이혼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남자	192 (100.0)	136 (69.8)	55 (28.2)	1 (0.5)	3 (1.5)
여자	232 (100.0)	117 (50.5)	113 (48.7)	-	2 (0.9)
전체	427 (100.0)	253 (59.2)	158 (39.3)	1 (0.2)	5 (1.2)

*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를 합한 수치임

<표 17> 이혼고려 경험

구분		성별		χ^2 / p	
		남자	여자		
이혼 고려 경험	전혀없다	빈도(%)	37(12.8)	29(10.0)	11.061/ 0.011**
		기대빈도	29.8	36.2	
	거의없다	빈도	49(16.9)	46(15.9)	
		기대빈도	42.9	52.1	
	가끔있다	빈도	42(14.5)	74(25.5)	
		기대빈도	52.4	63.6	
	자주 있다	빈도	3(1.0)	10(3.4)	
		기대빈도	5.9	7.1	
전체		45.2%	54.8%		

(3) 재혼에 대한 견해

재혼의 경우 해도 남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52.5%), 해야 한다(26.3%), 하지 말아야 한다(21.3%)순인 반면, 여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62.9%), 하지 말아야 한다(27.8%), 해야 한다(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혼에 대한 당위성은 부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계	재 혼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남자	160 (100.0)	42 (26.3)	84 (52.5)	34 (21.3)
여자	194 (100.0)	18 (9.3)	122 (62.9)	54 (27.8)

주 : '잘 모르겠다' 항목 있음

*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3) 노후 관련 실태

(1) 부모세대 관련 특성

부모 세대의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는 46%(195명)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이 건강문제 29.5%(125명), 외로움 및 소외감 13.4%(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19> 부모 세대의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

구분	빈도	퍼센트
경제적인 문제	195	46.0
직업 없음	15	3.5
소일거리 없음	8	1.9
건강문제	125	29.5
경로의식 약화	4	.9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	9	2.1
외로움, 소외감	57	13.4
노인복지 시설 부족	11	2.6
합계	424	100.0

또한 '부모세대는 생활비 마련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36.9%(156명)로 가장 많았고, 연금, 퇴직금 22.7%(96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85명), 자녀 또는 친척 지원 9.9%(42명), 정부 및 사회단체 6.1%(2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0> 부모세대 생활비 마련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자녀 또는 친척 지원	42	9.9
정부 및 사회단체	26	6.1
본인 및 배우자 부담	156	36.9
연금, 퇴직금	96	22.7
근로소득, 사업소득	85	20.1
기타	18	4.3
합계	423	100.0

(2) 노부모 부양 및 노후계획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가 44.8%(18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과 딸들이 해결해야 한다 26.1%(110명), 자식 중 능력 있는 자가 해야 한다 13.5%(57명),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7%(24명), 장남이 해결해야 한다와 이자들이 해결해야 한다가 각각 3.8%(16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르신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노부모 부양에 관한 견해

구분	빈도	퍼센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4	5.7
장남이 해결해야 한다.	16	3.8
아들이 해결해야 한다.	16	3.8
아들과 딸들이 해결해야 한다.	110	26.1
자식 중 능력 있는 자가 해야 한다.	57	13.5
가족과 정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189	44.8
정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10	2.4
합계	422	100.0

노후에는 운동, 독서, 여행 등 취미활동을 하며 보내겠다는 의견이 66.7%(280명)로 가장 많았고, 계속적인 경제활동이 16.2%(68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미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시사한다.

<표 22> 노후계획

구분	빈도	퍼센트
계속적인 경제활동	68	16.2
외국어 교양강좌 등 평생학습	12	2.9
운동, 독서, 여행 등 취미활동	280	66.7
자원봉사	36	8.6
가사 또는 손자녀 돌보기	12	2.9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9	2.1
기타	3	0.7
합계	420	100.0

한편,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22.7%(96명)으로 나타났으며, 예금, 적금 21.6%(91명), 개인연금(개인 가입 연금) 19.4%(82명), 국민연금 11.1%(47명), 공무원 연금(교직원, 군인 포함) 11.1%(47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노후에 누구와 지내기를 원하는지 알아본 결과, 배우자와 단둘이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76.6%(321명)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23> 노후를 위한 준비

구분	빈도	퍼센트	
노후 준비	국민연금	80	19.0
	공무원 연금	47	11.1
	개인연금	82	19.4
	퇴직금	9	2.1
	예금, 적금	91	21.6
	부동산	13	3.1
	주식, 채권	1	0.2
	준비하고 있지 않다	96	22.7
	기타	3	0.7
합계	422	100.0	
노후에 지내고 싶은 사람	나 혼자	23	5.5
	배우자와 단둘이	321	76.6
	만아들과 함께	3	.7
	이들 가운데 한명과	4	1.0
	딸 가운데 한명과	8	1.9
	형편 되는 자녀와 함께	23	5.5
	유료 노인복지시설	14	3.3
	무료노인복지시설	14	3.3
기타	9	2.1	
합계	419	100.0	

(3) 건강한 100세 시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확대(44.9%, 190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29.6%(125명), 사회 문화와 참여 확대 16.5%(7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생활 실태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확대 지원을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

구분	빈도	퍼센트
노인 일자리	125	29.6
노인복지확대	190	44.9
돌봄 서비스 지원	21	5.0
인권과 안전	14	3.3
사회 문화와 참여 확대	70	16.5
기타	3	0.7
합계	423	100.0

2. 노인관련 정책욕구

다가오는 100세시대에 노인 관련 정책(노인일자리 관련, 노인복지확대 관련, 돌봄서비스 관련, 인권과 안정 관련, 사회문화와 참여 관련)이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5, 표26과 같다. 전체 Cronbach's α 는 .914이며, 노인 일자리 욕구 .906, 노인복지 확대 .891, 돌봄서비스 .886, 인권과 안전 욕구 .884, 사회문화와 참여 .893 이다.

<표 25> 제주지역 주민들의 노인정책 욕구별 빈도 및 평균

노인 정책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노인 일자리	414	2.62	.490
노인복지 확대	414	2.48	.524
돌봄서비스	411	2.59	.498
인권과 안전	411	2.67	.484
사회문화와 참여	410	2.53	.535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때 정책관련욕구를 5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합

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보고 모름/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표 26> 노인 정책 욕구빈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노인 일자리	노인의 취업, 재취업 지원	4 (0.9)	16 (3.7)	109 (25.5)	282 (66.0)	16 (3.7)
	취업노인의 최저임금보장과 근무조건개선	5 (1.2)	13 (3.0)	115 (26.9)	279 (65.3)	15 (3.5)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3 (0.7)	12 (2.8)	109 (25.5)	288 (67.4)	15 (3.5)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킹	3 (0.7)	17 (4.0)	135 (31.6)	246 (57.6)	26 (6.1)
노인 복지 확대	장애인, 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복지 확대	4 (0.9)	14 (3.3)	103 (24.1)	284 (66.5)	22 (5.2)
	노인 1인가구를 배려한 주택자금 대출기준마련	10 (2.3)	39 (9.1)	141 (33.0)	211 (49.4)	26 (6.1)
	비취업노인의 국민연금 가입지원	10 (2.3)	36 (8.4)	157 (36.8)	201 (47.1)	23 (5.4)
	노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6 (1.4)	20 (4.7)	138 (32.3)	240 (56.2)	23 (5.4)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gender 정책	9 (2.1)	11 (2.6)	132 (30.9)	238 (55.7)	37 (8.7)
	노령연금지원과 노인돌봄 바우처 등	4 (0.9)	16 (3.7)	117 (27.4)	266 (62.3)	24 (5.6)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	5 (1.2)	12 (2.8)	122 (28.6)	268 (62.8)	20 (4.7)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6 (1.4)	12 (2.8)	118 (27.6)	266 (62.3)	25 (5.9)
인권과 안전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7 (1.6)	12 (2.8)	101 (23.7)	282 (66.0)	25 (5.9)
	노인폭력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5 (1.2)	12 (2.8)	99 (23.2)	286 (67.0)	25 (5.9)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지원	5 (1.2)	14 (3.3)	104 (24.4)	278 (65.1)	26 (6.1)
	노인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4 (0.9)	9 (2.1)	86 (20.1)	302 (70.7)	26 (6.1)
사회 문화와 참여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4 (0.9)	14 (3.3)	125 (29.3)	260 (60.9)	24 (5.7)
	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 마련	6 (1.4)	20 (4.7)	136 (31.9)	239 (56.0)	26 (6.1)
	신구세대간 경험 공유 및 사회적 자산 창출	6 (1.4)	18 (4.2)	150 (35.1)	229 (53.6)	24 (5.6)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 양성	3 (0.7)	22 (5.2)	145 (34.0)	235 (55.0)	22 (5.2)

제주지역 주민들은 인권과 안전 욕구(2.67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노인 일자리 욕구(2.62점), 돌봄서비스(2.59점), 사회문화와 참여(2.53점)의 유형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낮은 필요를 보이는 정책 유형은 노인복지 확대(2.48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의 평균 차이를 정리하면 <표27>과 같다. 즉 경제수준을 제외하고 성별, 연령, 학력, 가족형태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 욕구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관련 정책 욕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노인 정책 욕구의 평균 차이에 있어, 돌봄서비스 관련정책에서 여자가 남자 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정책욕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정책욕구를 살펴 본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노인 일자리관련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20-29세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노인 일자리 욕구, 노인복지 확대,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욕구는 49세 미만인 집단과 50대 이상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고, 인권과 안전 욕구는 20-29세 집단과 50세 이상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정책 욕구를 살펴 본 결과 돌봄서비스 관련정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의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정책욕구를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준이 하층인 집단이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형태의 경우 노인복지 확대 관련 욕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부집단(2.66점), 부부+자녀(2세대)(2.46점), 조부모+부부+자녀(3세대)(2.65점), 혼자(2.50점), 부 또는 모+자녀(한부모가정) (2.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만 있거나 3세대인 집단과 한부모가정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노인 정책 욕구의 평균 차이

배경변인		정책유형	노인 일자리(D)	노인복지 확대(D)	돌봄 서비스(D)	인권과 안전(D)	사회문화 와 참여(D)
성별	남자		2.58	2.43	2.54	2.63	2.49
	여자		2.64	2.53	2.64	2.69	2.56
	t값		-1.234	-1.789	-2.000*	-1.293	-1.340
연령	20-29		2.68(b)	2.56(b)	2.63(b)	2.76(b)	2.64(c)
	30-39		2.55(b)	2.48(b)	2.61(b)	2.65(b)	2.47(ab)
	40-49		2.69(b)	2.51(b)	2.63(b)	2.72(b)	2.56(bc)
	50 이상		2.40(a)	2.26(a)	2.38(a)	2.38(a)	2.32(a)
	F값		5.998***	4.664**	4.218**	9.659***	5.412***
학력	고졸이하		2.56	2.46	2.53	2.65	2.50
	대학이상		2.65	2.50	2.64	2.68	2.55
	t값		-1.912	-.943	-2.136*	-.639	-.863
경제 수준	중상이상		2.60	2.47	2.54	2.66	2.54
	중		2.61	2.46	2.59	2.67	2.52
	중하		2.63	2.51	2.57	2.63	2.52
	하		2.60	2.56	2.71	2.75	2.62
	F값		.036	.473	.863	.517	.317
가족 형태	부부만		2.55	2.66(b)	2.70	2.80	2.69
	부부+자녀 (2세대)		2.61	2.46(ab)	2.58	2.65	2.52
	조부모+부부+자녀(3세대)		2.74	2.65(b)	2.67	2.80	2.67
	혼자		2.57	2.50(ab)	2.51	2.58	2.44
	부/모+자녀(한부모가정)		2.64	2.31(a)	2.62	2.61	2.51
	F값		.958	2.528*	.810	1.748	1.692

* p< .05, ** p< .01, *** p<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인지하는 가족 및 노인 관련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100세 시대에 대응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제주형 가족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도민들의 가족 특성 및 정책욕구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정책적 함의와 연결지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1. 제주도 가족의 생활실태 요약 및 제언

가족생활 실태분석 결과,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며, 주말에는 개인취미생활을 가장 많이 하였다. 하루 가사시간은 30분 이내가 가장 많았고,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와 「부인이 주로, 남편은 보조해야 한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정도의 수준에서 가정생활내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결혼한 여성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육서비스, 가사분담, 육아 휴직제도 등의 순이었다. 현재 가정생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경제적 문제가 어려우며, 가정내의 문제는 주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결혼에 대해 대부분이 관심이 없다고 하였으며, 국제결혼가정(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양국의 문화체험, 한국어교육, 직업안내 및 취업훈련, 자녀양육, 요리교실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며, 절반정도는 현재 생활여건이 좋아졌고,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은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혼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된다」가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혼을 고려해본 경험에 대해서 남자들은 「거의 없다」가 여자들은 「가끔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재혼의 경우 해도 남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52.5%), 해야 한다(26.3%), 하지 말아야 한다(21.3%)순인 반면, 여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62.9%), 하지 말아야 한다(27.8%), 해야 한다(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가족주기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생활 주기 6단계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자녀출가 후 노년기의 연장으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평균수명 연장, 노년기 부부기간 연장 등에 따른 생애 재설계, 가족생활 재설계 및 관련 프로그램 제

공이 요구된다. 그리고 노년기 장기화로 은퇴 이후의 가족생활 적응 독려를 위해 남성들이 갈등 없이 가족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상담,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장수 노인을 위한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령-중립적이거나 다양한 연령별로 차별화된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부부관계의 안정성 및 정서적 친밀감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한 노인부부의 행동매뉴얼 제정 및 참여기회 확대하고 노년기 부부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버세대 부부 봉사단 발족과 가족간 재능나눔 문화 확산 등 건강한 가족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년기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부부의 공통분모인 취미, 봉사, 종교 활동 등을 고려하는 등의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절반정도의 수준에서 여전히 가정생활 내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가족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는 100세 시대에는 ‘퀵당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공동체 문화로 확산시킴으로서 가족은 물론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가족기능 회복과 유대감 향상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가정 내 성차별을 줄일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리라 기대해본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즉 다양한 가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양육과 부양에 대한 어려움,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이나 왕따,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부터의 정서적이고 심리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일반가족과 다양한 교류 및 관계 향상을 위해 공동체 문화 형

성을 위한 가족강화 패키지 발굴 및 현실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제주도만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고,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기반 다문화 정책의 실천과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결혼 및 가족구성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미혼 청장년의 가족형성 유인 정책 마련하거나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결혼이 갖는 형식적이고 의례적 의미보다는 당사자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결혼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성 평등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양성평등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며 아울러 양성평등 가족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노인관련 정책 욕구 결과 요약 및 제언

노인관련 정책 욕구 조사결과 부모 세대의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생활비 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노후에는 「운동, 독서, 여행 등 취미 활동을 하며 보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예: 적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순이었다. 또한 노후에는 「배우자와 단둘이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노인복지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사회 문화와 참여 확대 등의 순이었다. 또한 제주지역 주민들은 「인권과 안전 욕구」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100세 시대에 따른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최근 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의 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등)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에 의한 가족 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가 요구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노인 가족돌봄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읍, 동, 리 차원에서 고령자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성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와 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거나 부부공통의 생활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와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노인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와 함께 돌봄자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완전한 사회적 부양보다는 가족도 함께 책임져야하는 의식이 공존하면서 노년기에 다른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부양/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시니어 타운이나 노인 커뮤니티의 경우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일종의 ‘고령자 전용 호텔’인 셈인데,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aging-in-place) 돕고, 돌봄자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자의 배우자를 고려하여 참여자 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거나 독거노인 돌봄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노인 단독가구로 확대가 필요가 있다. 특히 도내 지역별로 가족 돌봄 네트워크를 결성하거나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 또 고령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거처유형이 단독주택이 가장 많으므로, 특히 독신 여성이나 독거노인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아울러 불편함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아 100세 시대 수명연장에 따라서 생애주기의 재개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생애구분을 새로 개념화하여 은퇴 연령 및 연금수령개시 연령에 대한 재조정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연령 중립적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노후에는 배우자와 단들이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 중노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돌봄은 부부의 애정이나 부부관계의 역사와 같은 관계적 자원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⁴⁹⁾ 따라서 중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함께 올레길 걷기, 제주의 오름 탐방기, 배우자를 위한 음식만들기 등)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노년기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의 전통과 놀이, 여가문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세대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자원봉사 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노인복지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100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족생활 실태를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부모 세대의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한 100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은퇴 후 노후생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연장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100세 시대에는 생애주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년기의 기간

⁴⁹⁾ 이순미·김혜경, 「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1(4), 2009. 63-94쪽.

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혼권의 확산, 권당 문화의 변화, 은퇴 후 남성의 가족적응,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다양한 세대의 공존과 노년기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가족관련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제주형 맞춤형 복지 확대 실시 및 노년기 부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 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높은 이혼율과 재혼에 따른 대책과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노노안정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100세 시대’는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방식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민들의 정책적 욕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의견과 욕구를 공론화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통로를 마련해야한다. 즉소외되고 잠재된 도민들의 정책적 욕구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략과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승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대책』, 제주발전연구원, 2004.
- 고승한·김진영, 「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기획재정부, 『100세 시대 종합컨퍼런스 자료집』, 2011.
- 김민호·오성배,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주국제자유도시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3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김영순, 「이민자 통합을 위한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 연구: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FGI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3, 2010.
- 김영순·이미정·최승은, 「제주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정책 실태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김진영, 『제주사회와 복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 김혜숙, 「제주도 장수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23, 제주학회, 2003.
- 김혜숙, 『제주도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 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12.
- 이순미·김혜경, 「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1(4), 2009.
- 이창기, 『제주도 인구나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1999.
- 장승심,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탐라문화』 4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최진희,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 정책 전망(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장혜경·김영란·최인희, 『100세 투자사회대비 가족정책과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장혜경·김은지,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제69차 여성정책포럼, 2011.
- 전홍택·박명호·윤석명·송양민·정형선·방하남·한주형,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11-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100세시대 도래와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2012.
- 제주발전연구원, 『100세 시대 도래와 가족·건강분야』, 제주미래포럼, 2012.
- 제주발전연구원, 『고령사회대비 노인 사회참여와 장수문화 계승·발전 모색』 제3회 장수문화포럼 세미나, 2013.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장수노인과 독거노인의 복지수준 질적 개선방안 모색』, 제1회 제주장수문화포럼세미나, 2012.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정책연구』, 기본연구(2009-1), 2009.
-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2011-2015)』, 2011.
-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 2010.
- 최인희·김영란·염지혜,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2012-3), 2012.
- 최재석, 「제주도의 장남가족」, 『아세아연구』 56, 1976.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1.
-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고서』, 2012.
- 통계청, 『2012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2013.
-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 2013.
- 통계청, 『고령화 복지정책의 사각지역 연령층(60~64세)에 대한 연구 분석』, 2010.
- 통계청, 『사회조사』, 2009.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 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 2013.
- 통계청, 『우리나라의 이혼·재혼 현황』, 2013.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13.
- 통계청, 『장래인구 추이』, 2010.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 2012.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2013.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0세 시대 가족』, 제69차 여성정책포럼, 2011
- 호남지방통계청,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자의 삶의 모습』, 2013.
- 호남지방통계청, 『2013년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2013.
- 황석규,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 정책의 과제와 미래」, 『담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Abstract

The research for what Jeju people need for their condition of living and the family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century year old peopl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based -

Kim, Hye - Sook · Lee, - Eun - Jung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century year old peopl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materials to establish the right policy for the family and elderly after surveying local people on their condition of living and needs for policies.

For this research, 427 local people were selected and asked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 on the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overall reality of families, the condition of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and the situ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ir needs for policies.

Anothe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the way to help develop measures for local famil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s to provide suggestions as an alternative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policy design in the future.

Key Words : the era of century year old people, Jeju people, condition of living, the family policy in preparation

교신 : 이은정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부
(E-mail : i-lej@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 12. 31.

심사완료일 2014. 01. 28.

게재확정일 2014. 01. 31.